문화유산 '광의 해석' 경쟁력 키워야

[기획/세계문화유산시대를 연다] 5) 눈치면 강해진다

등록 : 2013년 02월 13일 (수) 09:26:55 | 승인 : 2013년 02월 13일 (수) 09:29:48
최종수정 : 2013년 02월 13일 (수) 09:28:29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제주잠녀와 잠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제대로된 평가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잠녀들.

'자연과학 3관왕'효과 밀려 문화유산 평가 미흡
유네스코 등재 포괄적 접근·전문성 무게 중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으로 이미지 제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 300억원을 들여 지난해 개관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는 기념비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은 사실 '유형'이어서 가능했다. 무형인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 부족'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 경쟁력'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유·무형을 구분하는 것은 경쟁에 뒤처지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

 # 문화 콘텐츠 빈약 여전

지난해 7월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전남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제주해녀'특별전은 취지에 반해 잠녀문화에 대한 지역의 '홀대'가 부각되는 행사였다.

공동전시 대표목록은 2008년 제주도 민속자료 10호로 지정된 잠녀 물옷과 물질도구 15점 중 물질 작업과 직접 관련된 9점 외에 제주 잠녀의 일상을 담은 사진 자료로 채워졌다. 정작 이들의 생애사 등 기록 작업이나 콘텐츠 개발에 소홀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잠녀·문화 세계화 기본 계획 수립을 전후해 진행된 도문화재위원회에서 불턱과 잠녀굿과 연관이 깊은 해신당에 대한 문화재 등록 논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역시 잠녀문화와 연결돼 있지만 이를 살리지 못하는 등 '문화 콘텐츠 작업'자체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올해 제주도가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잠녀를 대상으로 한 생활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물질 작업 시간 △잠수복 이용 상황 △질병 실태 소득 현황으로 그들의 지닌 사회·역사·문화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 역시 시대에 따라, 또 조사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다 이전 조사에서처럼 몇 종류의 약을 먹고, 수입이 수년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는 사정은 문화전승 보다는 복지 등 관련 정책개발용 자료로 보다 유용하다.
생활기초조사는 필요하지만 내용에 있어 문화적인 부분을 채울 장치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 보존 아우르는 '그림'그려야

이런 우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빛을 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4월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 이후 꼬박 3년여의 산고 끝에 태어났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는가 하면 집행부가 책임을 미루면서 심의가 미뤄지지는 등 진통을 거듭한 끝에 '해양개발과'에 공이 돌아갔다. 이후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수년에 걸쳐 잠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해양수산국 내에서 잠녀는 '잠수어업인'이란 이름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해 아리랑의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 작업 과정에서 잠녀가 국가유산목록에 포함되는 등 문화유산으로 평가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문화정책과'와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 아직 잠녀 대표목록 등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복합유산'용역이 시작되는 등 말 그대로 판을 키우고 있다.

앞서 지질공원의 경우 대부분 대상이 천연기념물이라는 이유로 문화정책과에서 인증 등에 관련 작업을 맡았다. 중앙부처가 확실치 않아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이후 환경부가 지질공원 지원 계획을 내놓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성과를 얻었다.

반면 먼저 대표목록에 등재된 칠머리당영등굿의 경우 일련의 작업을 문화재청이 맡았던 까닭에 제주도 차원의 관심을 얻지 못하는 부작용도 지적됐다.

현재 대표목록 등재 작업이 진행 중인 잠녀·잠녀문화는 해양개발과를 주축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론은 '문화유산'이다. 문화정책과가 올해 시작하려는 복합유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연유산에 반해 미흡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문화유산 등재 작업을 애써 외면하는 것도, 자연유산관리국과의 역할 중복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아귀가 맞지 않는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식이 아니라 사업 추진에서부터 향후 관리·보존 방안까지 아우르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는 그래서 당연하다.